

1/13(목) 창세기 41-43장 <최대치>의 은혜

요셉은 여러 번 옷을 바꿔 입습니다.

아버지의 편으로 채색옷을 입었다가 벌거벗겨집니다(37:3, 23,28),

주인의 눈에 들게 되지만, 그의 아내에게 겹옷을 낚아 채입니다(39:12).

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게 되지만(39:20), 바로를 만나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(41:14).

마침내 국무총리에 오른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(40:42)

그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.

그러나 높은 곳, 낮은 곳을 오가는 와중에서도

요셉은 늘 <최대치>의 신뢰와 전권을 받았습니다(39:6,22,41:40).

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(39:2-3,5,21,23, 41:38, 50:20) .

형들은 요셉을 팔며 <그 꿈은 끝이다> 여겼을 것입니다(37:6-11).

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셨습니다(42:6,9).

요셉은 고위 관리의 집에서, 왕의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.

하나님은 각각의 자리에서 보고, 듣고, 익히게 하셨습니다.

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셨습니다(40:1-4).

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요셉의 형들도 만지셨습니다(42:20-21, 44:16,33).

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찾게 하셨습니다(41:15).

때가 되었을 때,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올리십니다.

때가 되었을 때,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을 재회하게 하십니다.

요셉은 총리로서 <최대치>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(41:38,54, 47:20,26).

요셉과 형들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

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에 막히지 않으십니다.

우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도 멈추지 않으십니다.

하나님은 <최적의 때>에 <최대치의 은혜>를 누리게 하십니다.

본문을 통독하며 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순종하는가? 묵상해 보십시오.

- ❶ 어떠한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에도 막힘없이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?
- ❷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가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?
- 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<최대치의 은혜>를 믿으며 소망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창세기 41-43장 (19:40)